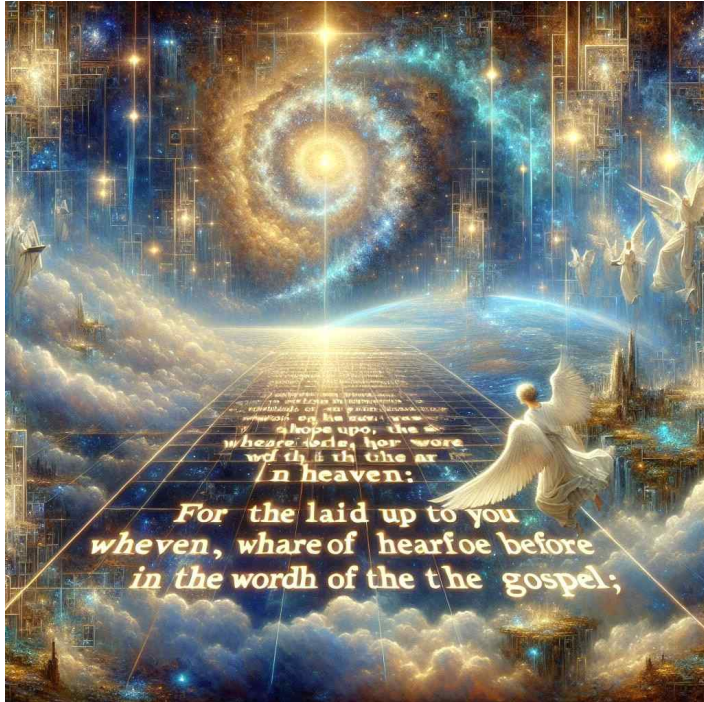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받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닌, '시간'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이후부터 돌아오는 시점까지, 종들에게는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환경, 재능, 조건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다섯 달란트를 받지 못했을까?"라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섯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환경입니다. 사실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란 없습니다. 다만 그 환경을 어떻게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의 왕자도 아니었고, 장군의 아들도 아니었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며 익숙해진 물매와 돌맹이를 통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어진 것을 들고 곧바로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을 긍정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집 세고 완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며, 함께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가꾸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갈 이
경배찬송 1장	다 갈 이
성서교독 67번 잠언 3장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96장	다 갈 이
기 도	1부 김실근 집사 2부 조철한 집사
성경봉독 골로새서1:3-6	인 도 자
찬 양 나의 눈을 들리라	성 가 대
설 교 복음 진리의 말씀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자
찬 송 405장	다 갈 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갈 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갈 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1:5,6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최금숙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예배소서교회론(61)6:14-의의 호심경(護心鏡)1
찬송/ 257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에스겔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이번 주는 에스겔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의의 호심경(護心鏡)’
- 주보에 “건강한 소그룹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1)” 자료가 있습니다.
- 오늘은 온세대연합예배입니다.
소그룹의 날이기도 합니다.
- 14일(목) 제80주년 8.15 광복절 나라사랑 조찬기도회(대덕구청)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오종화 박현규 2층 이화옥 송춘자 주차안내-이상열 황학성	김실근 조철한	태영성/범사감사
다음주	1층 오종수 김장옥 2층 이화옥 송춘자 주차안내-이상열 황학성	오종화 유상수	박지원/생일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8,15) 3구역(노인숙)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8,22) 4구역(손영문)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사 43장 15절 제 목 -거룩하신 하나님	활동 1.8월 암송 말씀은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2.여름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1시 본당)	1.오늘은 온세대연합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2.8월 암송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입니다. 3.건강하고 계획적인 방학보내기 4.다음주 기도는 백지은 선생님입니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1시 본당)	1.8월 암송말씀은 요한 1서 4장 18-19절입니다. 2.8월 예배인도는 김다연 자매, PPT는 김형섭 형제, 8/17(주) 대표기도는 박혜진 자매입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1시 본당)	1.8/17(주) 대표기도는 오지은 자매입니다. 2.8/17(주)예배 후 게이트웨이 친교시간을 갖습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기독교 기본생활

건강한 소그룹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1)

(이 글은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그룹이 교회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집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그룹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후 건강한 소그룹 문화가 초대교회의 복음을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미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그룹 사역의 역동성을 통해 교회가 계속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교회가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그룹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기 때문이다.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가 바로 세워 져야 한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의 정기적 모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비율이 84%에 달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소그룹 참여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는 교회 안의 교회(Church in Church)인 소그룹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그룹은 구역, 부서 사역과 독서, 운동, 등산 등 취미를 중심으로 모인 소그룹'이 있다. 성장하는 교회의 소그룹은 매주 모임 비율이 높았다. 신앙 소그룹이 모이는 주기는 '매주'가 64%로 가장 많았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매주 모인다'라는 응답 비율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소그룹 장소로는 '교회'(64%)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 '가정'과 '카페/식당' 등을 사용하고 있다.

소그룹 모임 방식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비대면을 병행하는 소그룹도 있었다. 선호하는 신앙 소그룹 편성은 비슷한 연령대의 소그룹으로 5-10세의 간격으로 나타났다. 소그룹 내 활동을 위하여 교회에서 홍보물과 다른 방법으로 활동사항을 알리는 일을 정기적으로

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공부나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 소그룹 만족도 높아, 나눈 이야기 비밀 보장돼야

소그룹 활용 내용은 뭘까? ‘말씀 나눔, 성경공부’가 7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제와 친교’ 67%, ‘삶 나눔’ 59% 등의 순이다. 교인 수가 증가는 교회가 소그룹 활동에서 ‘친교’와 ‘삶 나눔’을 비교적 풍성히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소그룹에서 감동과 은혜를 느낀 때는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며 교제할 때’가 64%로 가장 높았다. ‘어려운 일을 당한 소그룹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줄 때’(47%), ‘말씀을 들을 때/말씀을 나눌 때’(46%) 등이 뒤를 이었다. 소그룹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 소그룹의 만족도는 어떨까?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앙 소그룹의 만족도는 ‘만족’ 89%, ‘불만족’ 7%다. ‘매우 만족’이 42%다.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의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이 27%로 나왔다. ‘정치적 이야기 자제’가 21%, ‘타 교인들에 대한 비난 자제’ 19%이다. 이것은 신앙 소그룹에서 주의할 점이다. 어떨 때 신앙 소그룹 모임에서 부담스러울까?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과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할 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각각 49%로 가장 많이 나왔다.

소그룹 리더들이 ‘가장 기쁠 때’는 ‘소그룹 구성원의 신앙 변화가 나타날 때’가 33%로 가장 많았고, 부담을 느끼는 때는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17%)과 ‘시간적 부담’(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취향 소그룹, 교제와 친교 강화 모임으로 적극 권장돼야

작은 규모의 교회가 서로 잘 알아서 깊은 대화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소그룹 참여자를 늘려가는 것과 좋은 리더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가 취향 소그룹도 ‘교제와 친교를 강화하는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만 하다.

‘나의 관심(운동, 독서, 각종 취미활동 등)에 맞는 취향 소그룹이 운영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81%가 참여 의향을 보였다. 현재 ‘취향 소그룹 참여자’ 중 ‘취향 소그룹에서 말씀/삶을 나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9명에 달했다.

●성공적 소그룹 운영 위해 리더 잘 세워야

조사에 따르면 소그룹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영성 유지, 신앙 활동, 가정 신앙 활동, 교회 활동, 전도에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확인됐다. 소그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특징은 소그룹이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이며, ‘가정’(18%)이 아닌 ‘교회’(64%)에서 가장 모인다는 점이다.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

△소그룹을 삶을 나누야 한다

△소그룹에서 동질성을 강화해야 한다

△소그룹 리더를 잘 세워야 한다

△교회 관심분야 소그룹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소그룹은 개인화가 극단적으로 치달는 이 시대에 시대적 대안이면서 본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내적으로 유지할 방법이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활동 내용, 모임 빈도, 교제 제공, 리더 헌신도, 삶의 나눔 등 모든 영역에서 소그룹 지표가 뛰어났다.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는 소그룹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원활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소그룹은 소그룹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영적, 지적, 관계적, 인격적, 사회적인 이른바 전인격적 영역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균형 있게 성숙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 공동체이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효과적으로 섬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대로 훈련받고 준비된 소그룹 리더가 제대로 서 있기만 하다면 소그룹을 생동력 있게 살리고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교회는 오후 예배 대신에 주일 오후 소그룹을 세우는 일을 지속하고자 한다. 가정이나 다른 장소보다 교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이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예배후에 함께 곳곳에 모여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여기저기 일어 나기를 원한다. 나중에는 주일 오후에 소그룹 장소를 미리 신청을 받아야 할 정도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인도자들은 이 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흠어지는 파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한다.

주권자를 무시한 선택

하나님 찬양하기 * 주없이 살 수 없네 (새 292)

Focus : 성도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에스겔 117:1~10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앗수르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에 처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기다가 그를 배신했습니다(왕하 24:1). 이에 대한 보복으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애굽과 도모해 또다시 바벨론을 배신했습니다. 이를 응징하기 위해 바벨론은 마지막으로 유다를 침공해 멸망시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예언한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시 국제 정세와 유다가 당면하게 될 일에 관해 무엇을 말하라고 지시하셨나요?(1~2절)

적용과 나눔 나는 주로 어떤 통로(설교, QT, 기도 등)로 하나님 뜻을 깨닫는지, 주님이 최근 내게 깨우쳐 주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2.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강대국, 그리고 유다가 의지한 강대국을 무엇에 비유하셨나요?(3,7절)

적용과 나눔 세상 기준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거나, 내 마음대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던 유다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분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쉽고 빠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세상을 좇아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북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박해받은 전 세계 기독교임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을 헝가리 정부가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기도합니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국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국동방송(FEBC)	매 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 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